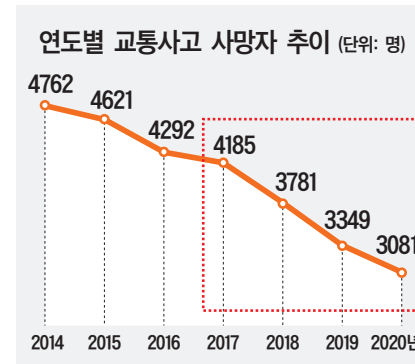


혁신은 종종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서비스로 측정된다. 최근 각광받는 'ESG지수'가 대표적이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적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앞글자를 딴 약자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새 측정도구다. 기업을 매출, 영업이익 등 재무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대신 E·S·G라는 비재무적 요소로 바라보려는 시도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지난 7년간 ESG 등급 상위권 30% 기업이 하위 30%보다 이익 증가율과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ESG지수는 평가기관 난립과 지수 오차로 인해 신뢰를 잃고 있다. 무엇보다 변화무쌍한 현장 기반 산업인 건설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혁신지수로 쓰기에 한계가 있다. 단순히 '착한 기업'을 넘어 '지속가능한 혁신기업'을 찾으려면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표가 필요하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여라” 국토지방청 전담부서 신설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지방 국토관리청에 교통안전 부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지방 국토청의 하천 관련 조직의 환경부 이관도 앞두고 있어 지방 국토청의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방 국토관리청에 교통안전 전담할 부서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지방 국토청에 TF(태스크포스) 형태로 교통안전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인원 보강 등을 통해 정규 조직으로 만들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5개 지방청에 5~6명 정도로 교통안전 TF팀이 운영 중인 데 예산과 인원을 더 늘려 전담부서로 만드는 구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지방청에 교통안전 부서를 두려는 이유는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목표 달성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일기 내에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4185명이었기 때문에 내년에 2000명대 초반까지 낮춰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3081명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까지 1000명가량의 사망자 발생을 더 줄여야 목표 달성이 만만치 않다.

특히 광역 지자체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차이가 최대 7.5배에 달하는 등 지역별, 도로별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있다. 실제 지난해 세종시는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2명에 불과하지만 전남은 15.2명에 달한다. 국토부는 지방청별로 교통안전 조직이 생기면 각종 교통안전 시설 점검 등 지역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해석기자 haeseok@ >10면에 계속

미래건설의 뉴트랜드... ESG 넘어 SCCI가 온다

(Smart Construction Corporation Index)

◆대경 '스마트건설기업지수' 9월 첫 발표

오는 9월 첫선을 보이는 스마트건설기업지수, 즉 'SCCI(Smart Construction Corporation Index)'는 미래 건설산업을 이끌어 나갈 혁신기업을 골라내는 눈 밝은 시각을 제공한다. >▶관련기사 17면

새 혁신지표는 <대한경제>가 주관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건설지원센터와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오토데스크코리아가 공동 수행한다.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산·학·연·연대표기관이 드림팀을 꾸렸다.

SCCI는 건설기업이 얼마나 혁신적인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스마트 건설기술'에 주목했다. 스마트 건설기술은 △건설 안전 △생산성 향상 △시설물의 생애주기 비용 최소화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통적인 건설기술에 BIM(건설정보모델링), 드론, 빅데이터,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적용한 융복합 건설기술을 의미한다.

건설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13%를 책임지는 중추(backbone) 산업이다. 세계 취업인구의 7%가 건설업 종사자다. 반면 낮은 생산성과 숙련인력 부족, 높은 재해율 등은 건설산업이 미래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디지털화, 자동화, 지능화, 모듈화로 요약되는 스마트 건설기술은 이 같은 난제를 해결할 강력한 도구다. 진경호 스마트건설지원센터장은 “앞으로 스마트 건설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지속가능

'ESG'만으로 건설기업 평가 한계 산·학·연·연 대표기관 드림팀 꾸려 지속가능한 혁신기업 지표 개발 시평 상위 30개사 시작 점차 확대 “뉴노멀시대, 디지털전환은 필수”

한 건설기업을 걸러내는 간편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CCI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기업 내수용성과 준비 정도를 평가한다. 스마트 건설기업으로 가기 위한 미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얼마나 준비하고 수행하고 있는지를 지수화한다.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실적평가(정량)와 역량평가

(정성)를 기반으로 △기업실적(매출·장비·투자·현장적용) △프로세스 △기술 △조직 등 평가항목별 배점을 부여해 1000점 만점 기준으로 부문 및 종합 등급을 부여한다. 감사보고서, 보도자료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한편, 조사기업의 보충자료를 별도로 제출받아 계량화가 힘든 요소를 찾아 지수를 보완하는 후속작업도 진행한다.

SCCI 조사·분석을 책임지고 있는 지식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기업들이 제출한 평가서 외에도 다양한 데이터와 교차 검증 등을 통해 과연 어떤 회사가 진짜 스마트 건설기업인지를 지표화하겠다”고 말했다.

평가대상은 일단 국토교통부의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30위 내의 건설 주력기업 가운데 상위 30개사로 잡았다. 국내

스마트 건설기술이 대형사를 중심으로 중견·중소사로 서서히 확산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스마트건설 역량에 따라 SCCI에서는 시평액 기준 후순위 기업이 앞순위 기업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국내 첫 SCCI 지수는 오는 9월1일 발표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SCCI 평가대상을 국내 상장 건설기업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동현 오토데스크코리아 대표는 “더 이상 ‘노멀(Normal)’로 돌아갈 수 없는 뉴노멀 시대에 건설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디지털 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성에 지속가능한 혁신기업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kth@

‘철근값 폭등’에도 공사비 증액 나몰라라... 평택시 ‘탁상행정’ 빈축

경기도 평택시가 철근값 폭등으로 유찰된 기술형입찰 대항공사 ‘평택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과 관련, 공사비를 기존 공고와 다름없이 책정해 발주한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발주기관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기계적인 입찰 공고만 되풀이하면서 소극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지 5월31일자 9면·14면 ‘번지는 철근 쇼크... 기술형입찰

평택 예술의전당 입찰 참여사 ‘O’ 한차례 유찰에도 단순재공고 논란

도 뒤흔들’ 참조 >▶관련기사 19면

지난 25일 조달청이 경기도 평택시 주요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의 ‘평택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제출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도 한곳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

다. 이 사업은 지난달 28일에도 참여업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건설업체의 외면을 받았다.

이 공사는 철근값이 폭등하기 전만해도 복수의 업체가 참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철근값이 폭등하면서 최근 가격을 반영하면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되자 참여를 잇따라 포기했다.

‘평택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사업’의 총 공사비는 757억원으로 책정됐는데, 이

예산 설정의 기초 조건인 기본설계가 철근 대란 시작 전인 지난해 10월 완료돼 최근 철근 가격 인상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한 차례 유찰 사태를 겪은 후 발주기관에선 어떠한 다른 적정 공사비 확보 노력 없이 추정금액기준 757억원으로 그대로 단순 재공고했다.

건설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철근값으로는 재공고를 한들, 유찰

이 명백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현재 설정된 공사비로는 실시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회사가 보도 아니고 철근 가격 폭등으로 사업비 증액이 시급한데 단순 재공고를 하면서 시간만 지체했다”며 “사업비 증액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야 했다. 이번 공고는 건설업계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GTX-D 강남연결, 운명은 >10면

중남미 건설시장 ‘기회의 땅’ 급부상 >11면

LH, 하반기 공공임대 7.5만가구 공급 >13면

미리보는 ‘2021 대한민국 랜드페어’ >14~15면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기술인’을 찾습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는 2022년 ‘건설기술인의 날’을 기념하여 건설산업 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건설기술인을 발굴·포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접수기간
 2021. 07. 01. ~ 09. 30.

포상종류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 수상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응모 및 접수 방법
 협회 정회원 5인 이상, 소속 업체(기관)의 장 또는 소속 기술인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응모서류를 구비하여 협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접수
 ※ 응모서류,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koce.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시상일
 2022년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 (2022.3.25. 예정)